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잔걸음

올 23개 사업에 767억원 투입 발생 10% 감축·수거 15% 확대 바다환경 지킴이 231명으로 늘려 수매사업·집하장 69개소 설치

전남도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실현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기반시설 확충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에 767억원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실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약 2만60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 이 가운데 2만2000t을 수거처리해 약 4000t이 누적됨에 따라 현재 약 8만7000t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량은 10% 감축하고 수거처리량을 15% 확대해 2026년에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수거 효율화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 확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도서·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14개 시군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141억원을 지원한다. 또 2019년 70명으로 시작한 바다환경 지킴이를 올해 231명으로 늘려 주요 해안가에 배치,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와 투기행위 감시업무를 맡겨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도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양식어장 환경개선,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등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7억원(2860ha)을 들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한다.

해조류, 패류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가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이 되는 점을 감안, 수산물 안전성과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친환경 부표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을 지난해(112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2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업중 유실되거나 무단 투기되는 폐그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해수부에 생분해 어구 보급사용 확대와 수산업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 결과 2026년까지 생분해성 어구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처리를 위해 육상·선상 집하장 69개소를 설치(43억원)하고, 인력과 장비 접근이 곤란해 해양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50호 미만의 유인도서나 무인도서 37개소에 소형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어촌인구 노령화와 수거장비 문제 해결을 위해 3억원을 들여 트랙터 등 수거장비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정화선 2척(150억원)을 건조하는 등 수거처리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함께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의 재원과 지원율을 군특회계 50%에서 일반국고 70%로 상향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관 주에서 벗어나 어업인, 수협,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거버넌스 구성 운영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다함께 참여토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강성은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인 바다, 섬, 갯벌 등 블루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식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는 창립 제17주년을 맞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결의하는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식' (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서약서는 ▲임직원행동강령 등 법과 원칙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윤리 실현 ▲직무 관련 금품·접대·향응 제공 또는 청탁 금지 ▲직장 내 성

희롱 금지 ▲직무상 권한 남용 등 갑질 금지 ▲직무상 획득한 비밀의 유출·활용 금지의 6개 반부패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공공기업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공사의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6월 전통주에 강진 청세주 선정

전남도가 65년 경력의 전통주 장인이 100% 강진산 햅쌀로 빚은 프리미엄 약주인 강진 병영양조장(대표 김건식) '청세주' (사진)를 6월의남도 전통주로 선정했다. 청세주는 '세상을 푸르게 하는 술'이란 뜻을 담고 있다. 100% 강진산 햅쌀과 함께 구기자, 산수유, 대덕, 오기피 등의 한약재를 첨가해 그윽한 향기와 독특한 감칠맛이 그대로 살아 숨 쉰다.



특히 저온에서 장시간 발효, 숙성해 풍부한 과실향의 단맛과 생약주 특유의 새콤함이 조화를 이룬다. 18%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부드러운 목 넘김과 숙취 부담이 없다.

김건식 대표는 "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누구보다 좋은 술을 빚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사랑할 다양한 술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

다"고 말했다. 병영양조장은 2014년 식품명인 제61호 지정, 2018년 국가 지정 술 품질인증 획득, 2020년남도 전통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전통주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남도 수목의 미' 뽑내며 전남수목비엔날레 홍보 상해 전통예술초청전 참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오는 7월 9일까지 중국 상해시 정부에서 개최하는 '제11회 국제전통예술초청전'에 초청받아남도 수목작품을 홍보·전시한다. <사진>



등을 통해 선보였다. 출품작은 전통수목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회화, 압화,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로 이뤄졌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펼쳐지는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목포·진

도 주 전시관 이외에도 범도민 수목 축제의 장 조성을 위해 광양·여수·나주·광주 특별전시관과 여수·구례 등 동부권을 비롯한 9개 시군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온라인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최대 650만원 지원

전남도가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장판 등 경보수 및 화장실, 욕실, 부엌 등 중보수로 구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650만원을 지원한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주택을 자원봉사단체에서 고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5년부터 19개 시·군 628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올해는 15개 시·군 147가구가 선정됐으며, 목

포 마항주거복지센터 등 도내 10여 봉사단체의 재능기부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를 참여시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보수를 실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지역 사정에 밝은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를 활용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기원 2세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 나서

2024년까지 국비 32억원 확보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종재)이 양돈 농가 고령화에 대응해 2세대 돼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에 나섰다.

전남도농업기술원(전남농기원)은 15일 "올해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 과제' 중 '2세대 돼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 및 실증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농기원은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국비 32억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기원 축산연구소,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IT 전문 업체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기존 2세대 스마트 축산 모델의 연구 성과와 과제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해 연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진은 2세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을 위한 우선 과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축사 내 환경정보(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제어·관리 기술 ▲돼지 생체정보를 이용한 번식돈의 조기 발생 탐색 및 증부를 통한 모든 회전을 향상 기술 ▲비육돈의 질병 조기 예측 모델 개발 등을 선정하고,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공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공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행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행체크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메타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 (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 예치보통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금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3)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5)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지신로 91번길2-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